



세계와 교류한 백제의 문화와 백제인의 삶

떠나자! 역사 블랙홀! 팀

1 답사 전 활동



YouTube

최태성샘과 마크의
부여여행 1,2화



도서

<국립부여박물관>
김종만, 주니어김영사
<10대들을 위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흥준, 창비



홈페이지

부여 문화 관광

<https://www.buyeo.go.kr/html/tour/>

2 답사 내용 (국립부여박물관,백제문화단지)

<1일차> 국립부여박물관->백제문화단지

1. 국립부여박물관

- 금동대향로 : 금동대향로에는 향을 피우는 구멍이 12개 있고, 꽃잎은 8개있으며 25마리의 동물의 조각이 있다. 그 중 가장 돋보이는건 용, 봉황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교류한 증거를 보여주는 코끼리, 낙타의 조각이 보인다. 도교를 보여주는 부분에는 신이 사는 신산(영생의 산)과 비어, 사람머리를 한 동물 등이 있고, 불교를 상징하는 부분은 연꽃이 있다. 백제는 도교와 불교를 모두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
- 마애불과 서산마애삼존불 : 백제의 미소, 백제 특유의 조형감을 보여준다.

➡ 백제의 문화교류를 보니 교류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현대에 우리나라는 김치와 같은 음식을 전파하고, BTS와 같은 가수가 케이팝 문화를 퍼트리고 있다. 또한 '뽀로로'나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등이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백제가 지금 멸망하긴 했지만 문화교류를 하면서 발전된 문화를 간직하는 자세를 배워야겠다.

2. 백제문화단지

- 능사 5층 목탑 :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백제왕실의 사찰로 부여 능산리사지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한 곳이다. 능사 5층목탑의 높이는 38m나 되었다.

➡ 목재로 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전쟁 때문에 문화재가 사라져 슬프다.



2 답사 내용(정림사지/부소산성/낙화암/백제왕릉원/나성)

<2일차> 부소산성,낙화암 -> 정림사지 -> 백제왕릉원,나성

3. 부소산성 / 낙화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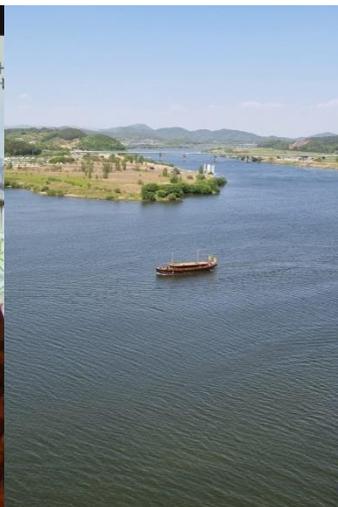
- 백제는 넓은 평야와 강을 끼고 있는 부여를 수도로 삼고, 다시 성장하려고 하였다. 부소산성은 왕궁의 후원으로 평상시에는 정원으로 사용하고 전쟁 시에는 사비도성을 지키는 배후 산성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멸망하였고 낙화암에서 3천 궁녀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온다. 실제로 3천명의 궁녀가 올라갈 수 없는 장소이지만 그만큼 백제 멸망을 슬퍼했을 것이다.

➡ 백제가 왜 도읍을 부여로 옮겼는지 알 것 같고, 금강을 통해 백제가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역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낙화암에서 내려다 보니 그 찬란했던 문화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의자왕의 마음이 느껴져 슬펐다.

4. 정림사지와 5층석탑

- 정림사지는 와적기단으로 되어있는데 아름다울 뿐 아니라 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드는 백제인의 실용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본에 전파되어 나라시대 건물에서 많이 발견된다.

➡ 백제시대에도 폐기물을 활용하는 조상들의 지혜를 볼 수 있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대에 우리도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겠다.



3 답사를 마치며

느낀 점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부여를 답사하며 일본과 동아시아로 전파된 백제의 건축 기술과 예술, 종교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세계 문화 유산으로 선정된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

자신만의 멋진 문화를 만든 백제가 멸망되어 슬펐고 일본과 동아시아에 문화를 전파하여 발전하게 해준 백제가 멋있었다.



배운 점

도교와 불교를 받아들이는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 다른 나라와 교류하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자세, 폐기물을 활용하는 실용적인 백제인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금동대향로는 그 모양만 알고 조각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알 수 있었고, 직접 찾아보니 흥미로웠다. 낙화암은 이전에는 실제 3천 궁녀가 알았는데 백제 멸망에 대한 슬픔이 담긴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쉬운 점

1박 2일 동안의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처음에 계획했던 관북리 유적과 가림성을 가지 못해 아쉬웠다. 백제 문화단지에서는 저녁에 가 어두워서 백제 생활문화마을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 다음에 다시 답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